

꿀벌의 선택 육종법

지난호에 이어...



윤은영

8. 성능이 우수한 교미왕을 얻고자 하면 성능이 우수한 웅봉양성을 권장합니다.

미혼남녀간 결혼상대를 고를 때 심각한 표정으로 상대의 인격, 지식수준, 심지어 가법, 체신법질, 여인교제 등 무엇하나도 헛되게 보아 넘기는 것이 없다. 꿀벌도 마찬가지로인 듯 싶다.

신생처녀왕이 발정단계에 몰입 시 수차 유희비행을 함으로써 고공을 쉽사리 지나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겠지만 한편 배우자감을 물색도 겸행하는 것일 것이다.

한데 성능이 우수한 봉왕을 기르고자 심혈을 기울일 뿐 성능이 우수한 웅봉을 기른다는 양봉가는 한국내에서 별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선진외국에서는 필수조건외 하나로 취급하니 정말로 한탄할 노릇이다. 그들의 논문을 보건대 동성교미를 할 때 더욱 필요불가결이라 하니...

어찌하였건 간에 식품의 소화분량은 (왕유와 화밀 또는 봉밀) 동봉의 1.8배로 체온 발사량은 동봉의 3배라니... 하나 상기한 먹이의 수요량보다 훨씬 더 먹은 개체가 교미용 수벌 노릇을 하고 불연자는 발정상 불구자라고 규명하고 있다. 그래서 종부군 일군내에서 유자격 웅봉을 500수씩 기르려면 화분

을 3Kg가량을 급이 해야 하며 상내 통풍에 원활해야 분봉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한다. 다시 언급하거니와 현재에서 일선 양봉인이 사육중인 쇠퇴한 낡은 벌을 길러 영화를 보기는 커녕 노력의 대가조차 어려운 시점에 도달한 요즘 이를 거울삼아 내일의 영광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업주의 심사숙고 여하에 따라 유무효과를 판가름하실 줄 믿어 마지 않는다.

9. 끝맺음

우리나라의 근대 양봉의 창시자격인 봉과 윤신영의 양봉의 제반 기술습득은 우연한 기회로 독일에 가서 쌍오디지방에 있는 독일 양봉연구 기관에 10년간 복무하여 실험 실습으로 배우고 익힌 산기술로, 미련이 있어 귀국시 세 가지 품종을 가지고 온 동기는 수밀력과 산란번식력을 기존 봉종보다 더 뛰어나게 개량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획기적인 봉밀 증산을 도모함에 있었다.

그 당시 이후 그분이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사육중인 꿀벌의 질 저하 경향을 모르고 평범하게만 여겨 그저 그런거니하고 단순히 여겨왔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1980년대 구봉 최승윤박사가 미국에


다녀온 이후부터 꿀벌의 품종개량이라는 화제가 번졌다. 이리하여 세간 사람 중 청각이 예민한 모리배 행각자가 국내 불편화한 꿀벌과 외국산 꿀벌을 교체하는 방식이 품종개량의 지름길이라고 판단하여 근 10년간 호주산 패키지벌을 1년에 3천군씩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꿀벌의 품종개량을 외치며 산란성이우수성을 지닌 순수성을 검정 보급함과 법제화를 외치는 학자도 생겼으니 아마 이제서야 비로서 바른길에 들어선 느낌이 든다.

진실로 꿀벌의 농사성쇠를 좌우하는 으뜸사업 중 품종개량이란 두 갈래 길이 있으니 하나는 일선 양봉가가 고쳐 행해야 할 선택 육종법을 필히 이행하면 수밀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국내 기존 단일 이탈리아 계통 벌에 한하여 동성교배시 치사율을 인정하고)

평범한 기술용역에 앞선 순수성 검정 확인 및 대 중 보급 업무는 특수기술기관에 일임하되 절대 이성교배로 발생한 잡종은 국내업주에게 보급하고 국외로 수출할 꿀벌은 선택육종에서 생산한 것에서 분리종에 한했으면 족할 것이다.

모름지기 국내양봉인 개개인이 선택육종방법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호주산 이탈리아계 계통의 패키지벌 뿐만 아니라 미국산이고 독일산이고 이탈리아종을 들여와 보았자 2-3년내에 퇴화경향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에 국가가 정책적으로 외화낭비 수단을 막아야 타당하다.

어디고 간에 순계 분리작업이란 동성교배 방식이므로 정상퇴화를 인정하는 것이며 꿀벌의 생애와 수밀력과 하등의 구별과는 무관하며 때에 따라서는 빛 좋은 개살구 꿀을 면하지 못할 것이 심중팔구이다. 

전국 봉군(꿀벌) 질병 감염실태 조사착수

양봉학회장 마영일 박사는 금년 6월부터 전국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질병 감염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현 전국에 만연되어 있는 각종 질병 감염실태를 지역별 시험용 봉군을 선정하여 샘플을 채취 6월부터 1년간 본 협회와 협조하여 연구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약품 및 처방 약품에 대해서도 연구 조사할 계획이며, 연구 조사한 결과를 전국 양봉농가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농림부 대폭강화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강화된다.

특히 가공식품의 특정원료 원산지가 1년내지 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되거나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 3회 이상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의 경우 원산지별 혼합비율의 표시를 생략하고 원료의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의 원산지 국명을 표시해야 한다.

본 세부안내서는 『농림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농림부』 홈페이지 : www.nef.go.kr